**데이터 치트 시트 : Vlookup 및 if/when**

*기권 : 이 두 가지는 모두 텍스트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것이 필요하다면 YouTube에서 ‘vlookup Excel’이나 "If statement excel"을 찾아볼 것을 추천한다. 수식으로 진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유튜브 비디오들이 있고 누군가가 그것을 따라한 화면을 보게 되면,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VLOOKUP:**

두 데이터 세트를 함께 결합할 수 있는 수식이다. 예를 들어, 스프레드시트 1에는 해당 기업이 위치한 상태를 가진 기업 그룹이 있다. 스프레드시트 2에는 모든 50개 주의 목록과 고급 학위(advanced degree)를 가진 시민의 비율이 나와 있다. 당신은 이 두 시트를 결합해서 당신의 사업을 위해 각 행에, 그들 고향에서 고급 학위를 가진 시민의 비율을 확인하길 원한다.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두 장의 다른 시트. 데이터를 하나의 ‘워크북’으로 이동해두면 도움이 된다. 즉, 스프레드시트 하단에 데이터 사이를 전환할 수 있는 탭이 있다. 그것들은 브라우저 내 다른 탭으로 존재하지 않는다[[1]](#footnote-0).
* 키(key) : 이것은 두 스프레드시트에서 동일한 값이다. 동일해야 한다.
  + 스프레드시트 2에서 키를 첫 번째 열로 이동시켜라. 키는 스프레드시트 2의 첫 번째 열에 있어야 한다. 스프레드시트 1의 어느 열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 스프레드시트 1에 빈 열을 만들어라. 이 열은 당신의 새로운 데이터가 갈 곳(기록될 곳)이다. 위의 예에서, 이곳은 당신의 홈스테이트를 위한 고급 학위를 가진 시민들의 비율이 기록되는 곳이다.

수식은 =VLOOKUP(A2,'Email data'!$1:993,2,FALSE). 수식은 방금 만든 빈 열의 첫 번째 셀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2행(제목 아래)에 있어야 한다. (제목이 있으면 모든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한다.)

위의 공식에서...

* A2는 당신의 키가 입력되는 스프레드시트 1의 셀이다. 그래서 위의 예에서 보면 국가 값이 될 것이다.
* 쉼표 뒤의 저 이상한 비트는 시트 2의 데이터에 대해 ‘찾아보기’를 원하는 값의 범위다. 이것을 (굳이) 직접 입력하지 마라. 공식 대화 상자가 있는 시트 2를 클릭한 다음 스프레드시트를 강조 표시하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당신의 범위를 채워넣을 것이다. 그런 다음, 1번 시트로 돌아가서 쉼표를 입력한다.
* 2는 첫 번째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할 데이터 포인트의 열 번호다. 그래서 우리의 백분율은 현재 스프레드시트 2의 열 B이다. 스프레드시트 2의 열 A가 우리의 키라는 것을 기억하라.
* FALSE. 항상 거짓 값이다. 왜 그런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검색의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

#### **중요한 배경 지식:**

만약 여러분이 악어(>, < 표시)가 항상 더 큰 값을 "먹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  |
| --- | --- |
| > | 보다 큼 |
| < | 보다 작음 |

#### **IF:**

값을 기준으로 행을 추가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를 지역으로 분류하거나, 날짜를 계절로 분류하거나, 사업을 산업으로 분류한다. 이것은 종종 숫자 값을 분류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100점 만점에 등급을 A-F로 분류하거나, 값을 낮은 값, 중간값 또는 높은 값으로 분류하거나, 특정 임계값을 초과하는 숫자를 너무 높거나 평균을 초과하는 값으로 분류하는 등이다.

가장 간단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IF(조건-테스트, 참일 때 수행할 일, 거짓일 때 수행할 일)

실제 사례를 보면 이렇다. 셀 B2에 다음과 같은 수식을 넣는 것처럼 해보자 : =IF(A2>0, "긍정", "부정"). 이 예는 A2 셀을 볼 수 있다. A2가 0보다 크면 B2가 "긍정"로 표시된다. A2가 0보다 크지 않으면 B2에 "부정"으로 표시된다.

if 구문을 쌓으면 하나의 구문으로 여러 개의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다. 이전의 예에서 "부정"이 있는 영역은, 다른 IF 문장이 (들어가는 자리) 될 것이다. 이런 식이다: =IF(A2>0, "긍정", IF(A2=0, "0", "부정")) 그래서 긍정은 위와 같이 작동하게 된다. 그러나 긍정이 트리거되지 않으면 명령문은 다음 명령어(A2=0)로 이동한다. 만약 그것이 ‘참'이 아니라면, 두 개의 진술이 모두 ‘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B2에 "부정"이 표시되었을 것이다.

예기치 않은 문제에 대한 문장: 위와 같은 IF 수식을 사용할 때 마지막 값(두 경우 모두 “부정")은 실제로 테스트되지 않는다. 즉, if B2<0이라고 하는 IF 구문은 없다. 이건 이슈를 만들어내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IF 구문을 쓸 때, 모든 가능한 값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각의 "tests"에 대해 IF 문을 작성하고 쉼표 뒤에 "ERROR"로 마지막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많은 골치거리를 덜고 싶을 때 "ERROR"를 입력한다.

위의 예: =IF(A2>0, "긍정", IF(A2=0, "0", IF(A2<0, "부정", "ERROR")

1. (번역자 주) 각각의 시트를 다른 워크북에 두지 말고, 하나의 워크북 내 다른 시트 탭으로 이동시켜두라는 의미다. [↑](#footnote-ref-0)